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자취... ⑪

월남파견 근로자의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못해서 새롭게 산업보건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필자가 이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자 하는것은 몇사람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기억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기억이 사라지기전에 아는대로 기술해 보고자 하는것이 며 후에도 정리 작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물론 뚜렷한 기록이 없기때문에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릇되게 전달될 위험도 있어서 망서려졌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나올것 같아 시작하였다. 글을 써나기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나가고자 하니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 광 목

지난번에 해외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1966년 잇따라 우리나라의 국군이 월남에 파병된 것을 계기로 많은 근로자들을 월남에 파견키로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진단을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서 맡았었다. 이것을 산업의학의 또 다른 한 장이라 여기는 것은 외국회사의 채용시 건강진단을 시행하였던 점과 우리가 선정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시행하였다는 점을 듣고 싶다. 물론 서독광부파견시의 건강진단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었다. 처음 계약을 하였던 회사는 RMKA(무슨 약자인지는 알 수 없다) 회사였는데 당시로서는 외국인 회사이니 건강진단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늘리고 늘려서 4,700 원을 요구하였다. 그랬더니 회사의 반응은 놀라움이었다.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더라는 것이다. 당시 우리 임상병리기사의 초봉이 6,600 원이었을 때이다. 한번 제출하였

던 내역이 있으니 수정할 수도 없어서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느라 힘이 들었다고 들었다.

이 월남파견 근로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에는 산업의학외적인 잇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취직난이었을 때이고 또 월남근로자의 월급이 국내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관계로 많은 희망자가 몰리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잡음이 향간에 나돌았었다. 그들은 우선 미국회사에 일차적인 취업승인이 있어야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일차취업승인을 얻는데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살고 있던 집의 전세돈을 몽땅 써버리거나 농토를 팔아 경비에 쓴 사람등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 한 사람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다. 당시 건강진단에 불합격되는 질병은 주로 폐결핵이었는데 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결핵이환율이 4% 정도인 때

라 폐결핵으로 인한 불합격자가 많았다. 따라서 일차건강진단에서 재검을 요하는 판정이 내려지는 사람도 많았었다. 이 사람도 미군부대에 다니다 사직하고, 집을 정리하고, 일차취업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리고, 처와 아이들을 시골에 있는 친정집에 맡겨놓은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는 옛 흉부X선 사진이 없었던 불합격이란 판정이 난 근로자였다. 그때 매일매일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불합격자와 재검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지라 그 사람들은 필자가 큰 권한을 가진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다. 이 근로자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필자를 붙들고 건강진단을 받게 될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과거에 찍은 X-선 필름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미군부대에 다닐때 찍은 것이 있는데 찾을길이 없고 당시 정상이라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 필름이 없으면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 1주일 이내에 가져오라고 전했다. 1주일후 그는 미군부대에서 내어주지 않아 못가져 왔노라면서 무조건 봐달라고 졸라대고 자리를 뜰 생각을 아니하는 것이었다. 하도 딱해서 윗분과 상의해서 1주일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고 미군부대에게도 필름을 대출해 주도록 서한을 써주었다. 이 근로자는 이러한 경로로 그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월남으로 떠나기 전날 내방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었다. 나가면서 책상앞에서 절하고 중간쯤 나가다 다시한번 절하고 문앞에 가서 다시한번 절하고는 평생을 잊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때 그 사람의 표정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후 일주일이내에 그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다. 직접 만나본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의 사망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보았다. 그는 월남에 도착후 배치장소 즉 근무지로 가기위해 소형버스에 올랐다가 베트

공의 수류탄공격으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것이었다. 지금도 인사하던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 내가 친절하지 않았었다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후 그 부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지금은 그의 이름조차 잊었지만 나에게는 지난날의 근로자 건강진단과 얼킨 잇을 수 없는 한 마당이다. 이외에 월남파견근로자 건강진단에 얽힌 일들은 아름다운일도 있었지만 옳지 않았던 일들도 있어서 지금은 별로 돌이켜 볼 생각이 없다. 이 월남파견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간접적으로 공헌한바크다고 여겨지는데 그들의 공을 인정하고 있는 이는 적은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이 아쉽기만 하다. 그후 월남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수가는 몇몇 병원의 덤핑으로 2,000 원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부실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다행스럽게도 이 건강진단이 인연이 되어 월남파견근로자들의 재해를 조사 분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이 방면에 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다.

그후 정부에서 출자한 해외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그 산하에 인력 연구소가 설립되어 해외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적성검사는 이 연구소에서 시행하기로 됨에 따라 이 사업은 우리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다. 이 연구소의 초대소장은 당시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이셨던 최영태 박사가 맡으셨었다. 이 연구소에는 적성검사부와 신체검사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신체검사부는 후에 소장직을 맡으셨던 신재근 선생님이 맡았었다. 이 연구소에서 하였었던 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월남민간의료단의 모집과 서독파견근로자의 모집등인데 이러한 일에 필자가 가끔 참여할 기회가 있었기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후 이 연구소가 언제 해체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지도 않은것 같다.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어려웠던 일은 이 건강진단이 일반정기건강진단과는 달리 당시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취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어서 불합격 판정자를 발표하고 나면 몇 일을 시달려야 했다. 필자는 단순한 건강진단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도 좀 보아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사정 하는데에는 동정은 가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부끄러운 일이 일을까 하여 이를 감시하는 일까지 맡아 하고 보니 더 어려웠다. 친인척들의 부탁, 고위층이라 자칭하며 청탁하는 압력, 수사기관의 넘겨집기 청탁 아닌 청탁 무조건 늘어지는 경제공세등 정문으로 퇴근하지 못한 날이 수없이 많았다. 가장 괴로웠던 일은 학교 동기동창되는 친구를 그야말로 보아주지 못했던 일이다. 두고두고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못들었다. 이 일은 나 나름대로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여 보았지만 안통했던 일이었다. 그 많은 불합격자의 원망을 들으면서 2년 가까이 지냈는데 이 일이 없어지고 나니 살 것 같고 나를 것 같았다. 지금도 잘 알 수 없는 일이 세상살이를 그렇게 원칙에 충실하려 하였어야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다.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 산업보건 분야는 산업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를 맞았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1960년 초반에는 사업장의 요구에 의해 그러한 일이 진행될 수 있었고 다음에 보사부의 후원아래 전국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사업장의 보건실태조사를 하였으나 1960년 후반에는 노동부의 연구 용역 사업에 의한 연구조사가 활발했었던 때이다.

196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16명으로 구성된 2개반이 30개사업장을 다음표와 같이 표본 독출하여 산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

태 조사를 실시하여 몇 가지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내어 놓은바 있다.

● 調査對象事業場

業	種	事業場數
鑛	業	5
造船	業	2
自動車製造	業	2
鍊鋼	業	2
電氣機器製造	業	4
印刷	業	3
陶器製造	業	2
스레트製造	業	2
고무製品製造	業	2
製紙工	業	2
織維工	業	2

- 유해작업환경에 관한 조사
- 근로자들의 질병에 관한 조사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 노동력동태에 관한 조사
- 산업보건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이후에도 노동청의 연구용역사업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공동으로 진행되었고 또 과학기술택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활발히 진행되었었다. 또 정당에서도 관심을 보여 당시 공화당에서 “사업장의 생산성저해인자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지출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출하는 용역비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의 어떤 부서의 어떤 수준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몰라도 연구용역계약은 국립기관에 한하고 관련기관에 해당 용역내용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사립대학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주어야 한다고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조사연구의 용역계약을 할 때 마다 우리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서 맡아하려면 국립대학이나 국립기관은 그러한 관련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었다.

이러한 일로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고 그러한 서류를 갖추기도 어려웠다. 듣기로는 국립기관에 연구를 맡겨 연구비를 지출하면 지출된 연구비를 다시 환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종의 정부예산 절약방침이 된다는 의견 때문이라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라 이런 발상을 하였었는지는 몰라도 어딘가 바보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되었었다.

이러한 일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었겠으나 1970년 중반기 이후에는 노동부의 연구용역사업은 부진하게 되었었고 또 작업환경조사나 건강진단결과가 일간지나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 막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은 위축되어 갔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구를 위하여 열어주었던 사업장개방에서 폐쇄방향으로 전환되어 산업현장을 조사할 수 없게 되었었고, 또 조사연구를 하더라도 발표하는 것이 어려워 연구자 자신들도 흥미를 잃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기관지인 “한국의 산업의학”지의 배부처명부에서 신문사를 빼기에 이

르렀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지상에 발표되는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방침을 세우게 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즉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발표자들이 기자들과 이야기 할 때 발표자의 의사를 명확하지 않게 전달한 것도 있고 기자들이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몰라도 작업장의 환경이 나쁘다는 점을 너무 과장한 것도 문제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제 연구 결과는 “모사업장의 소음작업장 근로자중 직업성난청자의 유소견자가 〇〇%였다”라는 것이 신문지상에는 “모사업장 근로자의 〇〇%가 직업성난청자”라고 발표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음작업장이란 말과 유소견자가 빠진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간지의 보도태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좀 정확하고 무리가 없는 보도태도가 아쉽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산업보건사업을 위축케 하였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정합니다.

지난 4월호의 제 2 차 직원연수교육 소감중
“삼박자의 춤”의 필자 오희숙양은 충북지부
소속직원이므로 이를 정정합니다.